

충청남도 백제 문화재의 관리현황과 활용방안

강종원(문화재연구부 연구위원)

1. 서론

문화의 세기인 21세기에는 문화가 국가간, 지역간 경쟁에서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고 있는데, 이는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가가 관건이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충남은 삼국시대 백제의 도읍이었던 공주·부여가 위치하고 있어 역사문화적 정체성 확보에 좋은 조건을 구비하고 있다.

백제문화의 우수성은 일찍부터 논의되어 왔지만 그 실체가 불확실하였다. 그런데 1971년 무령왕릉이 발굴되면서 백제문화의 실체가 확인되었으며, 1993년 부여 능산리사지에서 출토된 백제금동대향로를 통해 다시 한번 입증되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백제문화의 우수성을 인식하고 백제문화권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부여에 백제역사재현단지를 조성 중에 있으며, 이와 병행하여 백제시대 문화유적에 대한 정비·복원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이 백제시대 문화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및 연구가 부족한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어 지속적인 연구와 효율적인 정비·복원을 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문헌자료가 부족한 백제사의 경우 문화유산이 지닌 학술적 가치는 매우 크므로 이들 문화재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및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단순한 조사·관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백제역사·문화 복원을 위한 연구, 문화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관리방안 등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충청남도에 산재하고 있는 백제시대 문화재에 대한 현황과 관리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적절하고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아울러 이들 문화재가 지닌 특성과 성격을 통해 백제시대의 역사와 문화를 복원하고, 문화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한 지역사회가 보유한 문화적 자산은 지역민들의 자긍심 고취와 그에 따른 사회통합, 지역발전의 동기유발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진다. 특히 특정한 문화자산이 다른 지역에는 없어 그 지위가 독점적일 때 그 효용성은 더욱 크다. 충남의 경우 백제시대 문화유산은 그러한 의미에서 단연 우위를 점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체계적 보존관리와 활용은 지역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있어서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나아가 새로운 문화창조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一助할 수 있을 것이다.

2. 백제 문화재의 현황과 특성

1) 백제 문화재의 형성배경

충남지역이 언제, 어떠한 과정을 거쳐 백제의 영역으로 편제되었는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 따라서 각 시·군 지역의 백제 편입과정도 구체적인 검토가 어렵다. 다만 475년 공주로의 천도와 함께 충남지역이 백제 영역의 중심을 이루었다는 점은 분명하다.

충남의 백제 문화재는 공주(웅진)로 왕도가 옮겨오는 475년 이후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하였으며, 사비(부여)로 천도한 이후 세련되고 뛰어난 문화재를 많이 남기고 있다. 그 결과 왕도였던 공주와 부여를 중심으로 백제 문화재가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그 이외의 지역에서는 王都와의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각 지역의 역사문화적 또는 지리적 특성에 따라 특징적인 문화재가 형성되었다. 즉, 왕도의 동북지역은 고구려·신라와 국경을 접하고 있어 방어관련 시설이 많으며, 서북해안지역은 대외진출 및 문물유입의 창구로서 기능하면서 이와 관련된 문화재들이 조성되었다.

2) 문화재 현황과 특성

충남지역 백제 문화재는 왕도였던 공주와 부여를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으며, 중요문화재의 경우에는 그러한 편중현상이 더욱 크다. 그 현황을 보면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충남지역 백제 문화재 현황

지역구분	구분	합계	국가지정 문화재	도지정 문화재	기타	비율(%)
	시군					
왕도지역	공주시	110	18	9	83	19.57
	부여군	138	30	17	91	24.55
왕도 주변지역	논산시	37	1	6	30	6.58
	연기군	8		2	6	1.42
	청양군	44		2	42	7.82
서북해안 지역	예산군	27	2	1	24	4.8
	홍성군	24		2	22	4.27
	서산시	16	2		14	2.84
	당진군	5			5	0.88
	태안군	11	1	1	9	1.95
주변지역	보령시	35	1		34	6.22
	천안시	30		5	25	5.33
	아산시	5		2	3	0.88
	서천군	37		1	36	6.58
	금산군	35		1	34	6.22
	합 계	562	55	49	458	100

일반적으로 문화재는 지정주체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와 도지정 및 일반문화재로 구분되는데, 먼저, 충청남도의 국가지정문화재를 보면, 국보 28, 보물 87, 사적 42, 사적 및 명

승 1, 천연기념물 15, 중요무형문화재 7, 중요민속자료 22 등 모두 202점이다. 이 가운데 백제시대 문화재는 국보 28점 가운데 18점, 보물 87점 가운데 9점, 사적 42점 가운데 25점 등 모두 55점인데, 국보와 사적의 경우 백제시대 문화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도지정 및 일반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 가운데 보존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지정한 문화재이다. 도지정문화재는 문화재자료를 포함하여 615점(도지정문화재 325점, 문화재자료 290점)인데, 이 가운데 백제시대 문화재는 49점이다.

이 외에 유물산포지를 비롯하여 고분군 등 지표조사 상에서 확인된 매장문화재가 있는데, 이들 매장문화재의 경우에는 조사상의 한계로 인해 그 성격이 불분명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각 시·군별로 그 수에 있어서 편차가 많은데, 이는 조사상의 미흡으로 인해 나타난 현상이며, 실제 상황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중요문화재는 공주와 부여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는데, 국가지정문화재 55점 가운데 이들 2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문화재의 수가 48점으로 87%를 차지한다. 이는 이들 지역이 일정기간 백제의 왕도였기 때문이다. 특히 공주지역 문화재의 경우에는 무령왕릉 출토품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부여는 사지 및 사찰관련 문화재, 관방유적·고분 등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그 외에 왕궁관련 문화재가 일부를 차지하는데, 대부분 왕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기타 다른 시·군의 경우 중요문화재는 1~2점에 불과하거나 아예 없는 곳도 있다.

이들 백제 문화재를 유형별로 나누어 보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이 고분이며, 다음으로는 성곽과 불교유적(사지) 등이다. 그 외에는 왕궁관련 유적, 가마터, 그리고 성격이 불분명한 유물산포지가 있다. 특히 유물산포지의 경우에는 지표조사 상에서 확인되어 그 성격을 분명하게 알 수는 없지만 고분과 주거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3. 백제 문화재의 관리실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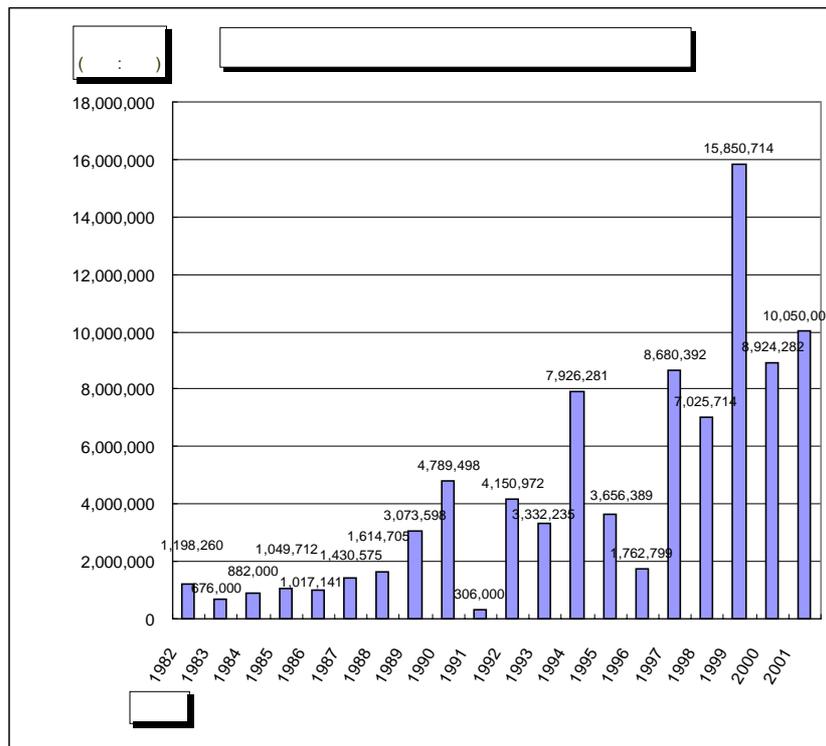
1) 백제 문화재 관리실태

백제 문화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는 1977년경부터 시작되었다. 이 시기는 신라문화권 개발사업이 일단락되는 시기이기도 하며, 이후 백제문화권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었다. 그러나 당시 백제문화권의 영역, 성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문화재의 정비·보수 등에 치중되었으며, 그 대상도 주로 공주·부여·익산 등에 집중되었다.

또한 초기의 문화재 정비는 주로 잘 알려진 대표적인 유적 일부에 한정되었으며, 그 내용도 주로 토지매입 및 유적의 정비에 그쳤다. 그렇지만 이를 시점으로 하여 1980년대 초에 들어와 백제문화권에 대한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되었으며, 그 범위는 서울지역을 비롯하여 공주·부여·익산 등 백제시대 문화재가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하였다.

다음은 1982년부터 2001년까지 백제 문화재의 관리에 투입된 사업비의 연도별 현황을 보면 [도표 1]과 같다. 여기에서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자료는 충청남도에서 파악하고 있는 개별 문화재에 대한 정비내역을 토대로 하였다. 따라서 각 시·군에서 개별적으로 유지·보수에 투입한 경비와 내용은 반영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기존의 문화재 정비내용을 보면 주로 지정된 문화재를 중심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이 경우 국비와 도비, 시·군비가 반드시 병행하여 투입되기 때문에 문화재의 전체적인 관리실태를 파악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도표 1] 백제문화권 개발사업비 연도별 증감표(1982~200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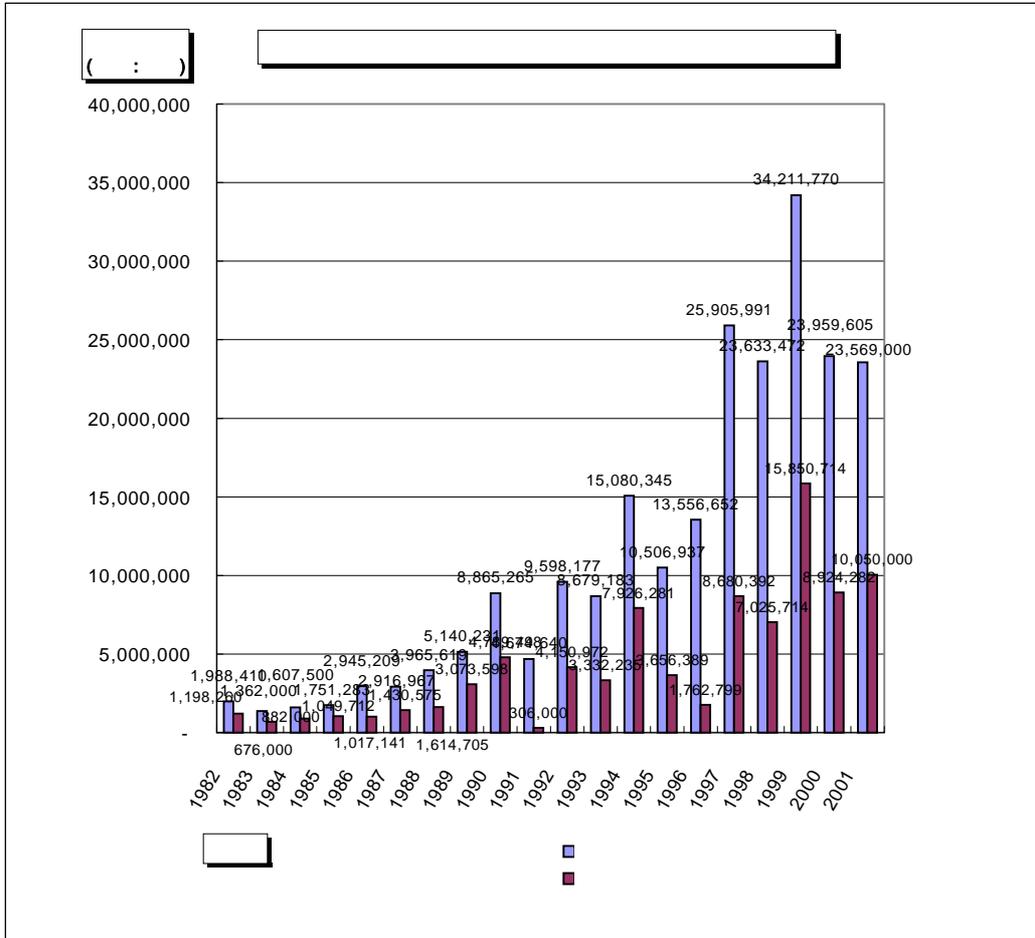


백제 문화재에 대한 예산은 1989년부터 본격적으로 투입되기 시작하여 불규칙적이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1999년에는 일시에 대규모의 예산투자가 이루어졌는데,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과의 관련이 있으며, 조성사업이 완료되는 2005년까지는 지속적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다음 [도표 2]는 충청남도의 문화재 관련 예산 가운데 백제 문화재에 투입된 사업비를 비교한 것이다. 중요문화재에 대한 본격적인 사업비가 투입되는 1980년대에는 충남 문화재 예산의 50% 정도가 백제 문화재 정비에 사용되었다. 이는 공주와 부여가 왕도였다는 역사성으로 인해 대외인식도가 높다는 점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충청남도의 전체 중요 문화재(국가지정 및 도지정) 가운데 백제 문화재의 비중은 202점 중 55점으로 27.2%, 국보는 28점 가운데 18점으로 64%, 사적은 42점 가운데 25점으로 59.5%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문화재 예산의 대부분이 투입되는 사적의 경우 백제시대 유적이 높은 비중을 차지

하고 있어 백제 문화재에 투입되는 예산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특징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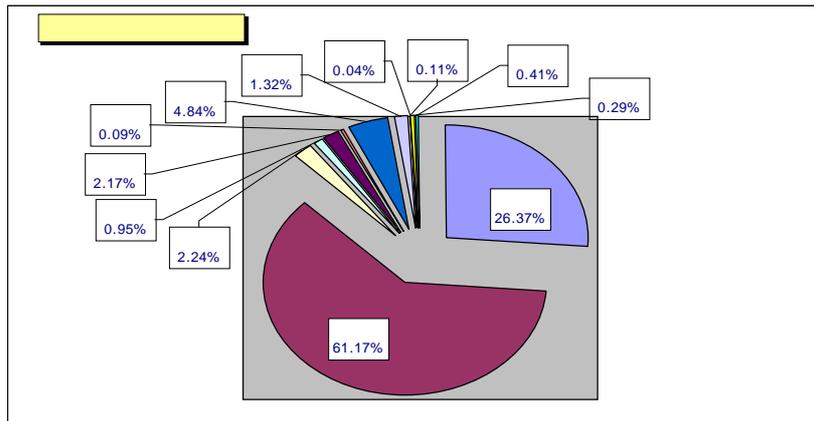
[도표 2] 백제문화권 사업비 비교표(1982~2001년)



[표 3] 충남지역 백제 문화재 정비 총괄표(1980~2002)¹⁾

(단위 : 천원)

					(1)	(2)
	97,063,440	61,331,915	24,738,920	10,735,516	1,919,684	70,500
	25,724,329	17,215,360	6,864,009	1,644,960	816,490	70,500
	58,928,112	37,596,716	14,723,041	6,458,408	799,794	0
	2,233,000	1,091,500	585,750	555,750	0	0
	942,571	658,000	142,286	142,285	0	0
	2,162,541	1,461,700	332,422	368,420	303,400	0
	90,000	0	45,000	45,000	0	0
	4,824,249	2,012,839	1,532,135	1,279,275	0	0
	1,317,783	771,000	356,250	83,391	0	0
	36,000	0	18,000	18,000	0	0
	108,000	50,000	29,000	29,000	0	0
	285,713	187,000	49,357	49,356	0	0
	411,142	287,800	61,671	61,671	0	0



2) 관리실태 분석

관리실태는 각각의 문화재에 대한 정비·보수에 투입된 투자비와 그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시기는 문화재에 대한 투자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1980년부터 2002년까지로 한다.

1980년부터 2002년까지 백제 문화재에 사용된 예산은 모두 97,063,440천원이다. 이를 각 시·군별로 보면, 부여가 61.17%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이 공주로 26.37%, 논산이 4.84%, 연기 2.24%, 보령 2.17%, 서산 1.32%, 예산 0.95%, 청양 0.41%, 태안 0.29%, 서천 0.11%, 천안 0.09%, 금산 0.04% 등이며, 아산의 경우에는 현재까지 백제시대 문화재에 투입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1) 발굴비의 경우 시·군 및 문화재청 자체예산을 직접 투입하여 조사가 이루어진 경우 본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다만 그 비중이 높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는 데는 크게 제약이 되지 않는다.

다음은 각 시·군별 문화재의 관리실태를 단위문화재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공주시는 전체 예산의 26.35%인 25,724,329천원이 투입되었다. 유적으로는 공산성, 송산리왕릉군, 대통사지, 구룡사지, 반죽동 당간지주, 주미사지, 수원사지, 남혈사지, 제라회맹단지, 신관동 석실고분, 동혈사지 등의 순이다. 이 가운데 공산성과 송산리왕릉군에 투입된 예산이 거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부여군은 현재까지 27곳에 모두 58,928,112천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충남지역 백제 문화재 정비에 사용된 전체 예산 가운데 61.17%를 차지하고 있다. 예산투입의 순위를 보면, 부소산성이 22%, 정림사지, 백제추정왕궁지, 궁남지, 부여나성, 왕흥사지, 능산리고분군, 구아리 백제유적, 구드래일원 등이며, 이들 9개소가 예산의 88%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 외에도 나성, 궁남지, 추정왕궁지, 왕흥사 등 중요 사적에 대해서는 현재 연차적인 발굴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계획이 수립되고 있다.

논산시는 계백장군유적, 노성산성, 황화산성 등 3곳에 모두 4,824,249천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이 가운데 계백장군유적에 88.5%가 사용되었다. 논산의 경우에는 사적인 노성산성 보다는 도지정 기념물인 계백장군유적에 보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 역사적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기군은 충남 전체 예산의 2.24%를 차지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이들 예산은 모두 비암사와 운주산성에 투입되고 있다. 특히 비암사는 백제시대 창건된 사찰로 예산의 61%가 투입되었다. 사용내역은 새로운 건물의 신축, 문화재 보수 등이며, 그 외에 조사 및 활용을 위한 예산은 거의 전무하다.

청양군은 전체예산의 0.41%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예산도 통일신라시대 때 창건된 것으로 전해지는 장곡사를 중심으로 정비가 이루어져 왔다. 다만 2002년에 우산성에 대한 발굴조사가 계획되었다.

서산시는 1,317,783천원이 투입되어 전체 예산의 1.32%를 차지하고 있다. 서산지역은 보원사지와 마애삼존불 2곳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부분의 예산은 보원사지의 토지매입에 사용되었다.

예산군은 전체예산에서 0.95%를 차지하고 있다. 사면석불과 임존성을 중심으로 사용되었으며, 이중 임존성에 90%가 투입되었다. 내용을 보면, 전체 사용예산 848,571천원 가운데 지표조사비 811,80천원을 제외한 90% 이상인 767,391천원이 성곽 보수에 투입되었다.

태안군은 마애삼존불에 285,713천원이 투입되어 0.29%를 차지하고 있다. 관리내용은 보호각 개축 및 주변정비에 그치고 있다. 이 외에는 축성시기가 백제시대까지 소급될 수 있는 백화산성에 대한 지표조사가 2002년에 처음 이루어졌다.

보령시는 성주사지와 도미부인 사당 2곳에 대한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예산은 2,162,541천원으로 2.17%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백제시대 초창되었으며, 통일신라시대 선문 9산의 하나였던 성주사지에 96%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었다.

서천군에는 108,000천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0.11%를 차지하고 있다. 예산은 추정백제건물지와 남산성에 대해 투입되었다. 그 내용을 보면, 추정백제건물지의 경우 1985년에 발굴조사가 이루어졌으며, 남산성은 2000년도에 발굴조사를 실시하였을 뿐이다.

천안은 백제시대 유적으로 확인된 것이 15개소의 산성과 15개소의 고분군이 있는데, 이 가운데 위례산성을 비롯해 사산성, 백석동토성 등에 대한 학술조사가 이루어진 것이 고작이며, 백제 문화재에 대한 별도의 예산투자는 없다.

금산지역은 삼국시대 지리적인 위치로 인해 백제 유적과 신라 유적이 함께 존재하고 있다. 이들 유적 가운데 장대리고분에 대한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신라고분으로 확인되었다. 현재 백령산성에 대한 복원을 위한 정밀지표조사 및 시굴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들 지역 이외에 홍성·아산·당진 등은 중요문화재로 지정된 백제시대 문화재가 없어 그에 대한 투자 역시 없는 실정이다. 다만 이들 지역에서도 각종 개발과정에서 구제발굴을 통해 백제시대의 매장문화재가 확인되고 있지만 개발과정에서 대부분 사라지고 있는 형편이다.

이상에서 문화재의 관리에 투입된 예산을 토대로 관리내용을 살펴보면, 토지 및 가옥의 매입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그 외에 성곽의 보수 및 복원, 도로정비, 각종 편의시설, 건물보수, 발굴조사, 기타 전시관 건립 등이다. 이들 내용은 모든 지역의 문화재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사항들이며, 지역에 따라 약간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3) 체계적 보존관리방안

앞에서 문화재관리에 투입된 예산을 토대로 충남지역 백제 문화재의 관리실태를 살펴 보았다. 그 결과 백제 문화재의 관리는 지역별·유적별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관리실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재 예산의 지역편중이 매우 크다는 점이다. 예산의 대부분이 매년 공주와 부여지역의 백제 문화재에 집중되고 있으며, 특히 부여에 대한 투자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둘째, 문화재 관리가 유형별로는 지역과 관계없이 주로 사적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셋째, 내용별로는 정비·복원, 토지·건축물 매입, 부대시설 건립, 발굴조사 등의 순이다.

넷째, 중요 문화재 일부를 제외하면 문화재의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정비 계획수립 없이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다섯째, 유물산포지 등 비지정문화재 및 매장문화재 등에 대한 사전 및 사후관리를 위해 정기적으로 투입되는 예산이 거의 없다.

여섯째, 백제 古都인 공주·부여지역 백제 문화재의 체계적 보존관리를 위한 계획이 수립되어있지 않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고려하여 백제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특정지역 중심에서 벗어나 충남에 분포하는 모든 백제시대 문화재를 포괄하는 관리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

둘째, 정비·복원에 앞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종합적인 학술조사가 실시되어야 한다.

셋째, 일회적인 보존관리에서 탈피, 종합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이

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특히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관리계획이 함께 수립되어야 한다.

넷째, 사전·사후관리체계의 마련을 통해 문화재 훼손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다섯째, 왕도지구 특별관리계획 수립을 통한 古都文化財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여섯째, 단순한 문화재의 정비·복원에서 탈피하여 문화재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보완해야 한다.

4. 백제 문화재의 활용방안

1) 백제 역사·문화 복원을 위한 자료

최근에 들어와 문화재의 관리는 원형보존에서 탈피하여 문화재의 활용이라는 측면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충남지역 백제 문화재는 백제시대의 역사와 문화를 복원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는 점에서 이를 활용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먼저, 유적의 경우 다양한 성격의 유적들이 남아있는데, 이를 유형별로 나누어 그 특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도성유적은 백제의 천도과정을 비롯해 각 시기별 문화적 변천과정을 파악하고, 유물의 고고학적 편년설정에 좋은 연구자료이다. 성곽은 백제의 건축문화뿐만 아니라 지방통치제도에 대한 연구를 가능하게 한다. 사지는 백제의 뛰어난 불교미술을 비롯해 불교문화의 전파 등을 연구하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그리고 고분에 대한 조사 및 연구는 묘장제를 비롯해 백제의 대외교류, 미술공예 수준, 나아가 생활상 등을 밝혀내는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끝으로 주거지는 당시 사람들의 일상생활 모습을 복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 지역별 문화특성을 연구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한다.

그리고 이들 유적에서 출토되고 있는 각종 유물은 물질문화를 연구하는데 있어 기본 자료인데, 주요 유물로는 금석문, 목간, 토기, 불상, 마구류, 무기류, 금속공예품, 기와류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문헌자료가 빈약한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는데 있어 소중한 자료인데, 첫째, 백제시대의 생활상을 밝힐 수 있는 물적자료, 둘째, 백제시대 지방통치체제를 연구할 수 있는 기초자료, 셋째, 중앙과 지방과의 관계 구명을 위한 비교자료, 넷째, 삼국간의 문화교류를 밝힐 수 있는 자료, 다섯째, 문화의 대외전파 및 교류관계를 알 수 있는 자료 등이다. 따라서 이러한 유물자료를 활용한 다양한 분야에 대한 연구가 폭넓게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설화와 전설은 그 자체를 역사적 사실로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실제 역사사실이 전개되었던 지역과 그 인근에서 나름대로의 역사적 사실과 바램 등이 이야기로 엮어져 전해지거나 또는 기록되지 못한 역사가 민속상에서 일정하게 변모하면서 전해져 내려온 것이다. 따라서 설화와 전설은 그 지역민의 의식세계뿐만 아니라 문헌 및 물질자료와 함께 당대의 역사를 복원할 수 있는 자료로서의 가치가 있다.

2) 문화관광자원으로의 활용

문화재는 문화관광의 가장 중요한 자원인데, 특정 문화자산이 다른 지역에는 없어 그 지위가 독점적일 때 보다 큰 효용성을 갖는다. 충남의 경우 백제시대 문화유산은 그러한 의미에서 단연 우위를 점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문화재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권역별 관광루트 및 주제에 따른 관광 요소의 개발이 필요하다.

먼저, 왕도지역의 경우 웅진시대의 백제문화(웅진시대 왕도관련 유적, 곰나루설화 등)와 사비시대의 백제문화(백제의 마지막 왕도가 위치하였다는 장소성, 왕궁 관련유적과 성곽 유적, 백제역사재현단지과 문화재의 연계)를 활용한 테마관광이 가능하다.

왕도가 정치·경제·문화의 중심지였다면 그 주변지역은 왕도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물자를 공급하고, 방어를 담당하는 기능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왕도 주변지역은 이러한 역사성을 보여줄 수 있는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이들 지역은 기능상 서로 유사하였기 때문에 관련 문화재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논산의 관방유적과 황산별전투의 연계, 연기의 관방유적과 비암사, 청양의 관방유적 등이다.

충남 서북부권의 뛰어난 백제 불교문화도 하나의 권역별 관광루트로 훌륭하다. 즉, 예산의 사면석불, 태안의 마애삼존불, 서산의 마애삼존불 등은 백제시대 불교문화의 유입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요소들이다. 그리고 천안·아산 등 충남 북부권은 웅진시기 이전 백제문화의 파급과정을 비롯하여 웅진·사비시기 관방체계를 이해할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다음은 주제를 가진 문화관광자원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요소로는 현재 부여에 조성되고 있는 백제역사재현단지를 비롯하여 백제문화제, 기타 백제관련 민속행사(은산별신제, 충화팔충제, 유왕산추모제, 임천충혼제) 등이 있다. 또한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관광요소의 개발이 필요한데, 예를 들면, 백제금동대향로에 담긴 내용의 현실화 즉, 동물원 및 조각공원의 조성, 테마별 관광루트의 개발, 중요 유적지에 조성되는 각종 박물관 및 전시관의 특화를 통한 체험교육공간으로의 활용 등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유적과 유물 중심의 문화관광 요소에서 벗어나 보다 다양한 주제를 가진 새로운 문화관광 요소를 창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5. 결론

이상에서 충남지역 백제 문화재의 관리실태 및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검토하고, 아울러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이들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문화재의 관리적 측면에서 보면,

첫째, 백제 고도권 중심 및 중요문화재 중심의 편중된 관리에서 벗어나 충남 전역에 분포하는 백제 문화재에 대한 보존관리가 필요하다.

둘째, 백제시대 문화재의 현황과 성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현재의 관리상태 및 정비를 위한 정밀한 진단을 실시한 후 종합적인 보존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셋째, 문화재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한 해당 문화재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연구를 통해 충분한 자료를 축적한 이후에 정비·복원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넷째, 예방적 차원에서의 문화재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이를 위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문화재의 활용적 측면에서는 백제 역사·문화 복원을 위한 자료 및 다양한 문화관광자원으로의 활용이 요구되는데, 백제 역사·문화 복원을 통한 역사문화 교육의 장, 유적·유물의 복원을 통한 관광자원화, 주제별 관광루트 개발 및 각종 이벤트 행사, 문화재를 활용한 문화관광상품의 개발, 민속행사의 활성화 등이 그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충남지역 백제 문화재의 체계적 관리와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대안이 요구된다.

먼저 문화재 관리적 측면에서 보면, 첫째, 백제 문화재의 종합적인 보존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모든 백제시대 문화재를 통합관리하고, 둘째, 이들 문화재의 정확한 정비·복원을 위한 조사·연구기능을 확보, 셋째, 예방적 관리 시스템 마련, 넷째, 고도관리 특별법 제정 및 고도관리를 위한 전담기구 설치와 주변 경관을 고려한 문화재 보존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그리고 문화재 활용적 측면에서 보면, 첫째, 백제의 역사·문화 연구를 위한 센터기능 확보, 둘째, 고도문화권을 축으로 한 관광체계 구축, 셋째, 충남지역의 권역별 관광루트 개발, 넷째, 다른 시기의 문화재 및 자연자원과 연계개발, 다섯째, 비지정문화재의 적극 개발 및 활용방안 모색, 여섯째, 백제문화재의 형태 및 문양에 담긴 내용과 사상의 재현을 통한 문화관광상품화, 일곱째, 백제관련 민속행사를 활성화시켜 현존하고 있는 관련 문화재와 연계한 관광상품화 및 적극적인 소재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참고문헌]

- 국립문화재연구소, 『21세기와 문화재연구』, 1999.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연구 발전계획 및 중장기 사업추진계획』, 2000.
김희정, 「문화관광 활성화 방안연구」, 1997,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문화재관리국, 『백제 고도문화권 문화유적 정비계획(안)』, 1979.
문화재관리국, 『백제 고도문화권 유적 조사자료』, 1979.
문화재청, 『문화재 보존관리 중장기 계획』, 2000.
문화재청,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 2002.
서정석, 『충남지역 백제유적의 조사현황과 과제』, 충남발전연구원, 1999.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지방자치시대의 문화유산 보호와 과제」, 1997.
윤용혁, 「백제문화권 개발과 충남발전」, 『열린충남』 창간호, 1995.
이강승, 「백제문화권개발의 현황과 과제」, 『열린충남』 제3권 제4호, 1997.
이남석, 「충남지역 백제유적의 연구현황과 과제」, 『열린충남』 제3권 제4호, 1997.
임재해, 『지역문화와 문화산업』, 지식산업사, 2000.
전라남도·목포대학교박물관, 『전남의 고대유적 보존 및 활용방안』, 2000.
정문교, 『문화재행정과 정책』, 지식산업사, 2000.
충청남도, 『백제역사재현단지조성 조사연구보고서』, 1996.
호남문화재연구원, 『호남의 문화유산, 그 보존과 활용』, 학연문화사, 1999.